

비감사서비스 및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박 수 연*

요약

본 연구는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한 표본의 경우 총 3,194개 기업-연도 자료, 그리고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관련한 표본의 경우 1,025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 여부와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감사품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감사서비스를 그 종류에 따라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와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로 구분하여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보수가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했을 때,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은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이 감사품을 저해하고 나아가 감사인의 독립성까지 저해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주제어 : 비감사서비스, 감사품질, 감사인 독립성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sooyeonpark@cau.ac.kr

〈논문 투고일〉 2019. 01. 28

〈논문 수정일〉 2019. 05. 29

〈게재 확정일〉 2019. 05. 29

I. 서 론

최근 감사인은 기업에 회계감사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09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1조 6,627억 원으로 전기(1조 5,314억 원) 대비 8.6% 증가하였고, 업무별 매출은 컨설팅 6,896억 원(41.5%), 회계감사 6,018억 원(36.2%), 세무업무 3,713억 원(22.3%) 순으로 컨설팅부문 수입이 회계법인 고유업무인 회계감사부문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계법인이 기업에게 감사서비스 이외에 컨설팅, 세무조정 등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감사인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비감사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어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비감사서비스의 매출액 비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인 의존 정도가 증가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따라서 엄격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Frankel et al., 2002). 반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과 무관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지식전이(Knowledge spillover)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Ashbaugh et al., 2003; Chung and Kallapur, 2003; Antle et al., 2002; Larcker and Richardson, 2004). 이와 같이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의 병행이 감사품질 및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논리가 존재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결과 역시 일관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Big 4 감사법인이나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높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감사인에 비하여 감사품질 또한 더욱 높다고 제시한다(Simunic and Stein, 1996; Francis et al., 1999; Balsam et al., 2003). 국내에서는 고재민 등(2009)의 연구에서 Big 4 감사법인이나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높은 경우, 피감사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이 높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피감사기업에 대하여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여부에 따라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나 감사의견,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 또는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Dechow and Dichev(2002)가 제시한 발생액의 질(accrual quality)을 이용하여 재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비감사서비스 보수의 크기가 발생액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여부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감사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변수로서, Dechow and Dichev(2002)가 제시한 발생액의 질은 총 발생액 중 시차와 대응 문제의 완화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동발생액에 초점을 맞추어(Dechow, 1994) 발생액의 질을 유동발생액이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동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현금흐름(CFO)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에서 추정오차의 절대값 또는 표준편차를 발생액의 질로 정의하고, 추정오차의 절대값 또는 표준편차가 클수록 발생액의 질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측정치는 재량적 발생액과 관련한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감사서비스를 제공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발생액의 질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즉, 비감사서비스의 보수가 높다고 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없었다. 셋째,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가설설정이 제시되며 3장에서는 표본의 선정과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와 해석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및 한계점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9회계연도 국내 회계법인 별 사업보고서 접수내용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들의 비감사서비스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회계법인이 기업에게 감사서비스 외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감사품질 및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과 관련한 이슈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경우 Enron 사태 이후 Global Crossing, Xerox, WorldCom 등 대표적인 대기업의 파산은 기업의 내부 및 외부 감사시스템과 경영진들 사이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최고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무보고 및 회계감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Sarbanes-Oxley 법안이 2002년 7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동법에서는 기장대리업무, 재무정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등 9개의 비감사서비스를 열거하고 회계감사와 동시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1년 12월 결산부터 거래소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소요시간, 감사인과의 비감사서비스 계약 및 보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부 비감사서비스 병행 금지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의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공인회계사법 21조, 2003.12.11.).

Frankel et al.(2002)는 전체보수 대비 비감사서비스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감사보수,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의 순위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비감사보수비율과 비감사서비스 보수 금액은 이익조정과 양(+)의 관련성이 나타난 반면, 감사보수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Ashbaugh et al.(2003)은 성과를 조정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Frankel et al.(2002)의 연구를 재검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이익조정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Chung and Kallapur(2003)도 감사인의 총 수입 중에서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두 변수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감사서비스 보수의 비중과 계속기업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비감사서비스 보수와 계속기업 불확실성 의견표명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eFond et al., 2002; Craswell et al., 2002; 손성규와 이은철, 2006). 그리고 Ruddock et al.(2004)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회계처리의 보수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유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반면, 이와 동일한 주제의 국내 연구인 김명인 등(2008)의 연구에서는 비정상 비감사보수금액이 클수록 감사인의 보수주의 정도가 감소하여 과도한 비감사서비스 관련 보수는 감사품을 저해한다고 제시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 또는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나,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액의 질이라는 새로운 대용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국내외 논문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 피감사기업에 대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품질과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감사서비스의 종류를 세무관련서비스와 세무이외의 비감사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의 서비스가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관련 서비스는 기타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의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액의 질과의 관계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 피감사기업에 대한 비감사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감사품질과 관계가 다를 것이다.

다음은 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조절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검증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산업별 전문감사인들의 감사품질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O'keefe et al.(1994)은 산업별 전문감사인들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들에 비해 회계감사기준(GAAS)에 부합되는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Gramling et al.(2001)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업의 회계이익이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Balsam et al.(2003)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업은 재량적발생액이 작고 이익반응계수인 ERC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Krishnan(2003)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재량적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종일 등(1999)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피감사기업이 더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계상한다고 보고한 반면, 나종길과 최기호(2005)는 이들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낮은 것을 제시하였다. 고재민 등(2009)의 연구에서는 Big 4 감사법인이나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높은 경우,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피감사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이 높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산업별 전문성이 높은 감사인의 경우 특정 업계에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명성을 쌓는데 투자를 한 만큼, 평판(reputation)을 보존하고 소송으로 인한 위험 및 명성의 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간에 존재하는 정(또는 부)의 관계를 강화(또는 약화) 시킬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높을 경우,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도록 한다.

가설 2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Ⅲ. 연구모형

3.1. 표본자료와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 (1) 금융업
- (2) 12월이 결산기가 아닌 기업
- (3) 사업보고서 상 비감사서비스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기업
- (4)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

위와 같은 조건에 의해 최종적으로 총 3,194개 기업-연도 관측치가 본 연구의 최종표본으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기업별 재무제표자료는 한국상장회사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에서, 비감사서비스 관련 자료는 사업보고서에서 추출하였다.

〈표 1〉 표본의구성

Panel A : 연도별표본분포

	관측수	%
2001	325	10.18
2002	355	11.11
2003	402	12.59
2004	403	12.62
2005	418	13.09
2006	425	13.31
2007	435	13.62
2008	431	13.49
합계	3,194	100.00

Panel B : 산업별표본분포

	관측수	%
전문서비스업	152	4.76
음식료품	167	5.23
섬유, 의복	187	5.86
펄프, 종이	121	3.79

	관측수	%
화학	352	11.02
의약품	161	5.04
플라스틱, 고무	106	3.32
비금속광물	142	4.45
철강및금속	259	8.11
기계	104	3.26
전기, 전자, 의료정밀	410	12.83
건설	260	8.14
도매, 소매업	245	7.67
운수장비	369	11.54
기타	159	4.99
합계	3,194	100.00

표본의 연도별 및 산업별 분포를 나타낸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연도별 및 각 산업별로 표본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발생액의 질의 측정

Dechow and Dichev(2002)는 총 발생액 중 시차와 대응 문제의 완화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동발생액에 초점을 맞추어(Dechow, 1994) 발생액의 질을 유동발생액이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발생액은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현금주의 회계원칙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당기 영업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말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근거하여 계상된 발생액은 단기간 내에 영업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한 발생액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발생액은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발생액이 과거, 현재, 미래에 현금흐름으로 잘 전환되는 경우에는 발생액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동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현금흐름(CFO)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에서 추정오차의 절대값 또는 표준편차를 발생액의 질로 정의하고, 추정오차의 절대값 또는 표준편차가 클수록 발생액의 질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발생액의 질에 의하면, 재량적 발생액이라도 차기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 경우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Dechow and Dichev(2002)의 방법에 따라 발생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발생액(TCA)을 종속변수로, 전기, 당기 및 차기의 영업현금흐름(CFO_{t-1} , CFO_t , CFO_{t+1})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TCA_{it} = \alpha + \beta_1CFO_{it-1} + \beta_2CFO_{it} + \beta_3CFO_{it+1} + \epsilon_{it} \quad (1)$$

$$TCA = ((\text{유동자산-현금}) - (\text{유동부채-유동성장기부채}))/\text{평균자산}$$

$$CFO = \text{영업현금흐름}/\text{평균자산}$$

위의 식(1)에서 계산된 잔차(ϵ_t)는 현금흐름으로 실현되지 않거나 불확실성이 큰 발생액을 의미하며, Dechow and Dichev(2002)는 발생액의 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회귀식에서 계산된 잔차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즉 잔차의 변동성이 클수록 발생액의 질이 낮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잔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발생액이 현금흐름으로 잘 전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발생액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 식(2)와 (3)과 같이 (t-4)년부터 t년까지 5개년의 표준편차와 절대값의 방식으로 발생액의 질을 계산하였다.

$$AQ_{it} = \sigma(\epsilon_{t-4}, \epsilon_{t-3}, \epsilon_{t-2}, \epsilon_{t-1}, \epsilon_t) \quad (2)$$

$$AQ_{it} = |\epsilon_t| \quad (3)$$

ϵ_t =식(1)에서 계산한 잔차

잔차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유동발생액이 현금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발생액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잔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유동발생액 중에서 현금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발생액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즉 위의 식(2)와 (3)에서 도출한 AQ의 값과 발생액의 질은 음(-)의 관계에 있다.

3.3.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시장점유율 접근법(market share approach)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은 한 회사의 특정상품 매출액이 국가 전체의 동일 상품 매출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회계감사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특정 감사인의 감사보수 수입액이 회계감사시장 전체(또는 해당 업종)의 감사보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권수영 등, 2007). 그러나 외국에서는 기업의 감사보수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수에 대한 대용치로 해당 기업의 총자산(또는 총자산의 제곱근) 또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Mayhew and Wilkins, 2003, Krishnan 2003, Balsam et al., 2003, Neal and Riley, 2004, Casterella et al., 2004 등). 본 연구

에서는 Palmrose(1986), Mayhew and Wilkins(2003) 등에서 이용한 기준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1위와 2위인 경우에 산업별 전문삼사인으로 판정하기로 한다.

3.4. 회귀분석모형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 1>을 설정하였다. Dechow and Dichev(2002)가 제시한 유동발생액의 예측오차에 관한 기본 모형에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 또는 비감사서비스의 보수 수준을 관심변수로 포함하였다.

<모형 1>

$$AQ = \beta_1 + \beta_2 \text{NAS} + \beta_3 \text{LTA} + \beta_4 \text{STDCFO} + \beta_5 \text{STDSALES} + \beta_6 \text{OPCYCLE} + \beta_7 \text{NEEARN} + \text{Year Dummy} + \text{Industry Dummy} + u$$

여기에서,

AQ	발생액의 질
AQ1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에 의한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5개년 표준편차
AQ2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에 의한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절대값
NAS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NASD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TAXD	세무관련서비스의 제공 여부 (세무관련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 1, 아니면 0)
OTHERD	세무이외서비스의 제공 여부 (세무이외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 1, 아니면 0)
LNAF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TAX	세무관련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OTHER	세무이외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TA	총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
STDCFO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
STDSALES	과거 5년간의 매출액의 표준편차
OPCYCLE	기업의 영업순환주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NEEARN	과거 5년간 음(-)의 계속사업이익이 보고된 횟수

종속변수인 발생액의 질 (AQ)은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에 의하여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5개년 표준편차 또는 절대값을 사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AQ 변수는 발

생액의 질이 높을수록 낮은 값을 갖게 되므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유의하게 AQ의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이 감사품질을 재고한다면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것이다.

관심변수인 NAS의 총 6가지 변수는 <모형 1>에 각각 교체투입 하였다. 총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나타내는 NASD,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나타내는 TAXD,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인 OTHERD,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에 자연로그 값을 취한 LNAF, 세무관련 서비스의 보수에 자연로그 값을 취한 LTAX, 마지막으로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 값을 취한 LOTHER 이 본 연구의 관심변수이다.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들은 Dechow and Dichev(2002)가 제시한 발생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량적 변수(innate factors)들로, 기업규모,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 매출액의 변동성, 영업순환주기 그리고 과거기간에 손실이 보고된 횟수를 이용한다.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과 매출액의 변동성은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치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영업현금흐름과 매출액의 변동 또한 심해지므로 발생액의 예측오차가 증가할 것이다.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은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로 측정하고, 매출액의 변동성은 과거 5년간의 매출액의 표준편차로 계산하였다. 영업순환주기는 360일을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일수를 합한 기간의 자연대수 값으로 측정하였다. 영업순환주기가 길수록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발생액의 예측오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거기간에 손실이 보고된 횟수는 과거 5년간 음(-)의 계속사업이익이 보고된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발생액의 예측오차를 증가시킨다.

IV.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표 2>는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종속변수인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표준편차(AQ1)의 평균과 중위값은 각각 0.072와 0.043으로 나타났고,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절대값(AQ2)의 평균과 중위값은 각각 0.056과 0.054로 나타났다.

NASD는 총 표본 중에서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평균은 0.321로 나타나 총 표본 중 약 32.1%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TAXD와 OTHERD는 비감사서비스를 받은 기업 중 각각 세무조정 서비

스와 세무이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빅마사서비스를 받은 기업 중 약 17.2%가 세무조정 서비스를, 19.7%가 세무이의 서비스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LTA는 최소값(15.998)과 중위값 사이의 범위에 비해 최대값(25.007)과 중위값 사이의 범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중위값을 초과하는 LTA는 그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발생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기본여건 변수인 과거 5년간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STDCFO), 과거 5년간의 매출액의 표준편차(STDSALES), 기업의 영업순환주기(OPCYCLE), 과거 5년간 순손실을 보고한 횟수(NEGEARN) 등 5개의 변수 모두 발생액의 질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국내 선행연구들인 고재민 외(2009), 박종원과 여환영(2010) 등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¹⁾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나타내는 INDSPEC의 평균값은 0.401로 나타나 표본 중 약 40.1%가 산업별 전문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값	표준편차	Q1	중위수	Q3	MIN	MAX
LNAF	3,194	10.180	1.613	8.821	9.903	11.399	6.215	15.233
LTAX	3,194	9.197	0.949	8.517	8.987	9.473	6.908	13.817
LOTHER	3,194	10.836	1.592	9.903	10.834	11.918	5.704	15.233
NASD	3,194	0.321	0.467	0.000	0.000	1.000	0.000	1.000
TAXD	3,194	0.172	0.377	0.000	0.000	0.000	0.000	1.000
OTHERD	3,194	0.197	0.398	0.000	0.000	0.000	0.000	1.000
AQ1	3,194	0.072	0.043	0.041	0.062	0.094	0.005	0.352
AQ2	3,194	0.056	0.054	0.019	0.039	0.077	0.000	0.677
LTA	3,194	19.499	1.475	18.457	19.210	20.356	15.998	25.007
STDCFO	3,194	0.061	0.039	0.035	0.052	0.076	0.003	0.430
STDSALES	3,194	0.179	0.476	0.074	0.121	0.193	0.008	15.818
OPCYCLE	3,194	4.618	0.621	4.327	4.663	4.981	-0.301	7.685
NEEARN	3,194	0.914	1.331	0.000	0.000	2.000	0.000	5.000
INDSPEC	3,194	0.401	0.490	0.000	0.000	1.000	0.000	1.000

주 1) LNAF=비감사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TAX=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를

1) 고재민 외(2009)의 연구에서는 SIZE, STDCFO, STDSALES, OPCYCLE, NEGEARN의 평균이 big4 (non-big4)에 따라 18.90(18.48), 0.07(0.06), 0.16(0.17), 4.72(4.79), 0.49(0.60)으로 나타났고, 박종원과 여환영(2010)의 연구에 의하면 12.4370, 0.0691, 0.1524, 4.6944, 0.6327으로 나타났다.

취한 값, LOTHER=세무이의 비감사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NASD=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TAXD=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OTHERD=세무이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AQ1=Dechow and Dichev(2002)의 모형에 의해 추정된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과거 5년 표준편차로 측정된 발생액의 질, AQ2=Dechow and Dichev(2002)의 모형에 의해 추정된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절대값으로 측정된 발생액의 질, LTA=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STDCFO=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 STDSALES=과거 5년간의 매출액의 표준편차, OPCYCLE=기업의 영업순환 주기에 자연로그를 취한값, NEEARN=과거 5년간음(-)의 계속사업 이익이 보고된 횟수, INSPCED=시장점유율로 측정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있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4.2. 상관관계분석

〈표 3〉은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Pearson 상관계수와 p-값을 정리하였다.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LNAF와 발생액의 질을 나타내는 AQ1, AQ2 변수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비감사서비스의 보수가 클수록 발생액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LNAF와 LT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규모기업이 비감사서비스의 보수가 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생액의 질을 나타내는 AQ1과 AQ2 변수의 경우 기업규모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발생액의 질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 매출액의 변동성, 음(-)의 계속사업이익이 보고된 횟수가 증가할수록 AQ변수가 높은 값을 가지므로, 발생액의 질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 매출액의 변동성은 과거 5년간 순손실을 보고한 횟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적자 보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INDSPECD는 발생액의 질인 AQ1, AQ2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산업별 전문감사인일수록 발생액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INDSPECD와 LTA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여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산업별 전문감사인인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주요변수간상관관계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AQ1	1.000								
(2)AQ2	0.511 (0.000)	1.000							

	(1)	(2)	(3)	(4)	(5)	(6)	(7)	(8)	(9)
(3)LNAF	-0.175 (0.000)	-0.127 (0.000)	1.000						
(4)LTA	-0.238 (0.000)	-0.149 (0.000)	0.547 (0.000)	1.000					
(5)STDCFO	0.194 (0.000)	0.130 (0.000)	-0.021 (0.499)	-0.150 (0.000)	1.000				
(6)STDSALES	0.083 (0.000)	0.072 (0.000)	0.001 (0.975)	-0.001 (0.939)	0.135 (0.000)	1.000			
(7)OPCYCLE	0.070 (0.000)	0.044 (0.013)	-0.273 (0.000)	-0.267 (0.000)	0.055 (0.002)	-0.176 (0.000)	1.000		
(8)NEEARN	0.309 (0.000)	0.202 (0.000)	-0.138 (0.000)	-0.263 (0.000)	0.174 (0.000)	0.087 (0.000)	0.082 (0.000)	1.000	
(9)INDSPECD	-0.055 (0.002)	-0.043 (0.015)	0.319 (0.000)	0.266 (0.000)	-0.024 (0.184)	0.005 (0.782)	-0.104 (0.000)	-0.015 (0.402)	1.000 (0.290)

주1) 괄호안의 값은 p-값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4.3. 회귀분석결과

<표 4>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 1>에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 관련 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로는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에 의하여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5개년 표준편차 또는 절대값을 사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발생액의 질(AQ1과 AQ2)을 사용하였다. 관심변수로는 비감사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인 NASD,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인 TAXD, 그리고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인 OTHERD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AQ1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이 AQ2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설명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유무를 나타내는 NASD,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유무를 나타내는 TAXD,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유무를 나타내는 OTHERD 변수들은 모두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감사품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실증분석결과,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이 감사품질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 기본여건 변수인 기업규모(LTA)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발생액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생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STDCFO), 과거 5년간의 매출액의 표준편차(STDSALES), 과거 5년간 순손실을 보고한 횡수(NEG EARN) 등의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데,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유동발생액의 예측오차의 표준편차 및 절대값이 증가하여 발생액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²⁾

〈표 4〉 비감사서비스의제공여부와감사품질

	AQ1			AQ2		
Intercept	0.137*** (10.410)	0.140*** (10.840)	0.138*** (10.320)	0.101*** (5.880)	0.103*** (6.100)	0.100*** (5.770)
NASD	-0.002 (-1.120)			-0.001 (-0.640)		
TAXD		0.000 (0.180)			0.000 (-0.170)	
OTHERD			-0.001 (-0.620)			-0.001 (-0.560)
LTA	-0.004*** (-7.960)	-0.004*** (-8.650)	-0.004*** (-7.860)	-0.003*** (-4.560)	-0.003*** (-4.930)	-0.003*** (-4.430)
STDCFO	0.135*** (7.210)	0.135*** (7.220)	0.136*** (7.240)	0.113*** (4.610)	0.113*** (4.600)	0.113*** (4.640)
STDSALES	0.004*** (2.780)	0.004*** (2.770)	0.004*** (2.770)	0.006*** (2.790)	0.006*** (2.790)	0.006*** (2.790)
OPCYCLE	0.001 (0.590)	0.001 (0.580)	0.001 (0.570)	0.001 (0.600)	0.001 (0.600)	0.001 (0.580)
NEEARN	0.008*** (14.100)	0.008*** (14.040)	0.008*** (14.070)	0.006*** (8.790)	0.006*** (8.770)	0.006*** (8.790)
Adj. R ²	0.139	0.138	0.138	0.059	0.059	0.059

주 1)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주 2)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2) Dechow and Dichev(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같음

〈표 5〉는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감사품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 1〉에 비감사서비스의 보수 관련 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나타냈다. 종속변수로는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에 의하여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5개년 표준편차 또는 절대값을 사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발생액의 질(AQ1과 AQ2)을 사용하였다. 관심변수로는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LNAF,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LTAX,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LOTHER를 교체 투입하였다.

〈표 5〉 비감사서비스의보수와감사품질

	AQ1			AQ2		
Intercept	0.131*** (6.050)	0.124*** (4.030)	0.164*** (5.800)	0.071** (2.510)	0.088** (2.160)	0.071** (1.980)
LNAF	-0.001 (-0.880)			-0.001 (-1.150)		
LTAX		-0.006** (-2.490)			-0.004 (-1.350)	
LOTHER			-0.001 (-0.550)			-0.001 (-0.710)
LTA	-0.004*** (-4.780)	-0.001*** (-0.930)	-0.006*** (-5.530)	-0.002* (-1.890)	-0.001 (-0.620)	-0.003*** (-2.190)
STDCFO	0.096*** (3.090)	0.147*** (2.850)	0.103*** (2.860)	0.059*** (1.450)	-0.016 (-0.240)	0.115** (2.510)
STDSALES	0.006** (2.110)	0.003 (0.670)	0.006* (1.830)	0.011*** (2.930)	0.006 (1.030)	0.011*** (2.620)
OPCYCLE	0.003 (1.590)	0.002 (0.570)	0.003 (0.990)	0.006** (2.010)	0.004 (0.990)	0.007** (2.160)
NEEARN	0.007*** (6.890)	0.005*** (4.260)	0.007*** (5.670)	0.007*** (5.800)	0.006*** (3.590)	0.007*** (4.500)
Adj. R ²	0.143	0.101	0.194	0.077	0.040	0.109

주 1)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주 2)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표 4〉에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게 AQ1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이 AQ2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설명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5개년 표

준편차로 측정된 발생액의 질(AQ1)과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LTAX는 5%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높을수록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AX를 제외한 LNAF와 LOTHER 변수들은 발생액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 사이에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유무 변수를 사용한 결과인 <표 4>와 동일하게 기업 기본여건 변수인 기업규모(LTA)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발생액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생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STD CFO), 과거 5년간의 매출액의 표준편차(STD SALES), 과거 5년간 순손실을 보고한 횟수(NEG EARN) 등의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데,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유동발생액의 예측오차의 표준편차 및 절대값이 증가하여 발생액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AQ1	AQ2
Intercept	0.128*** (5.890)	0.067** (2.350)
NAFSPEC	0.000 (-0.920)	0.000 (-0.980)
LTA	-0.004*** (-5.480)	-0.003** (-2.420)
STDCFO	0.093*** (3.000)	0.054*** (1.330)
STDSALES	0.006** (2.150)	0.011*** (2.980)
OPCYCLE	0.003 (1.570)	0.006** (2.010)
NEEARN	0.007*** (6.920)	0.007*** (5.840)
Adj. R ²	0.143	0.076

주 1)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주 2)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표 6〉은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의 교호작용이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종속변수로는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에 의하여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5개년 표준편차 또는 절대값을 사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발생액의 질(AQ1과 AQ2)을 사용하였다. 관심변수로는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변수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NAFSPEC 변수를 투입하였다.

NAFSPEC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회귀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감사품질의 관계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완화 또는 강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교호작용은 감사품질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가지 기업 기본여건 변수들은 Dechow and Dichev(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발생액의 질이 높고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준편차(STDCFO), 과거 5년간의 매출액의 표준편차(STDSALES), 기업의 영업순환주기(OPCYCLE), 과거 5년간 순손실을 보고한 횟수(NEG EARN) 등으로 측정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발생액의 질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의 관계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된 재량적 발생액이 아닌 Dechow and Dichev(2002) 모형에 의하여 유동발생액 예측오차의 5개년 표준편차 또는 절대값을 사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발생액의 질(AQ1과 AQ2)을 사용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중 12월 결산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비감사서비스 관련 변수로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 비감사서비스 보수의 금액을 이용하였고, 각각의 변수를 비감사서비스의 종류별로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와 세무외 비감사서비스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식에 교체투입하였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시장점유율로 측정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이 1위와 2위인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최종표본은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한 표본의 경우 총 3,194개 기업-연도 자료가, 그리고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관련한 표본의 경우 1,025개 기업-연도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 여부와 발생액의 질로 측정된 감사품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비감사서비스의 보수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한 검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품질과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감사서비스를 그 종류에 따라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와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로 구분하여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보수가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감사서비스의 보수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수를 관심변수로 투입한 결과, 종속변수인 발생액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했을 때,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은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이 감사품을 저해하고 나아가 감사인의 독립성까지 저해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감사서비스의 보수 수준 자료의 경우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정확하게 수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비감사서비스를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와 세무이외 비감사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 역시 사업보고서 상 공시된 비감사서비스의 내역을 좀 더 세부화하여 분류하고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추려내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표본의 기간을 충분하게 늘리고,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보수 수준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정확하게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재민, 김상일, 이호영. 2009. “감사품질의 대응치와 발생액의 질의 상관관계.” 회계4연구, 제 34권, pp.1-43.
- 권수영, 신현걸, 정재연. 2007. “우리나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회계저널, 제16권, pp.1-25.
- 김명인, 최종학, 서민정. 2008. “감사인의 감사 및 비감사보수와 고객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33권, pp.175-209.
- 나종길, 최기호. 2005. “회계감사인의 산업별전문성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1권, pp.261-297.
- 박종원, 여환영. 2010. “정보위험과 주식수익률 프리미엄.” 재무관리연구, 제27권, pp.209-237.
- 박종일, 이명곤, 원정연. 1999.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감사인의 감사 품질분석.” 한국회계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 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pp.135-150.
- 손성규, 이은철. 2008. “경영자-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인교체.” 회계와 감사연구, 제48권, pp.205-229.
- Antle R, Gordon E, Narayanamoorthy G, and Zhou L. 2003. “Audit Fees, Non-audit Fees and Abnormal Accruals: U.S. Evidence.” Working paper. Yale School of Management.
- Ashbaugh, H., R. Lafond, and B. W. Maydew. 2003.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further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 78, pp.611-639.
- Balsam, S., J. Krishnan, and J. S. Yang. 2003.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Earnings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 pp.71-97.
- Casterella, J., J. Francis, B. Lewis and P. Walker. 2004.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Client Bargaining Power, and Audit Pricing.”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3, pp.123-140.
- Craswell, A., D. J. Stokes, and J. Laughton. 2002. “Auditor Independence and Fee 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pp.253-275.
- Chung, J. H. and S. Kallapur. 2003. “Client Importance, Nonaudit Services,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8, pp.931-955.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pp.193-225.
- Dechow, P. M. and I.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Supplement),

pp.35-59.

- DeFond, M., K., Raghunandan, and K. Subramanyam. 2002. "Do non-audit services fees impair auditor independence? Evidence from going concern audit opin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 pp.1247-1274.
- Francis, J., E. Maydew, and H. Sparks. 1999. "The Role of Big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tual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8(3), pp.17-34.
- Frankel, R. M., M. F. Johnson, and K. K. Nelson. 2002.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7, pp.71-105.
- Gramling, A. A., V. E. Johnson, and I. K. Khurana. 2001.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orking Paper. Georgia State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Krishnan, G. V. 2003. "Audit quality and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March, pp.109-126.
- Larcker, D. and S. Richardson. 2004. "Fees Paid to Audit Firms, Accrual Choices,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 pp.625-658.
- Neal, T. and Richard R. Riley Jr. 2004. "Auditor Industry Specialist Research Desig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3, pp.169-177.
- Mayhew, B., and M. S. Wilkins. 2003.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s a Differentiation Strategy: Evidence from Fees Charged to Firms Going Public."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 pp.33-52.
- O'Keefe, T., R. King, and K. Gave. 1994. "Audit fees, industry specialization, and compliance with gaas reporting standard."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3, pp.41-55.
- Palmrose, Z.(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Spring), pp.97-110.
- Ruddock, C., Taylor, S. J. and Taylor, S. L. 2006.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Conservatism: Is Auditor Independence Impaired?"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3 (3), pp.701-746.
- Simunic, D. and M. Stein. 1996. "The impact of litigation risk on audit pricing: A review of the economics and the evide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5, pp.119-134.

The Effect of Non-audit Services and Industry Specialist Auditor on Audit Quality

Park, Soo Yeon*

■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influence of simultaneously offering non-audit services on auditor independence, and thereby audit quality which is proxied by audit fee. We conducted empirical tests on how different types of auditors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imultaneously offering audit and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by industry specialist audito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s empirical test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suggesting that simultaneous providing non-audit services does not impair the auditor independence.

Key Words : Non-Audit Service, Audit Quality, Auditor Independence

* Chung-Ang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ssistant Professor, sooyeonpark@cau.ac.kr

